

강대국, 질서재편기 이용해 영향력 확대



이철기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시사논단

당샤오핑 사후 동북아 정세 분석

의 독립 요구로 한 제제가 붕괴돼 여러 개의 독립된 지방권력으로 분할될 것이라는 '중국해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덩의 사후를 대비해 후계체제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온 만큼 별다른 혼란이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현상유지설'이다. 또 다른 예측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민주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민주개혁론'이다.

이처럼 덩의 사후 중국의 정세에 대한 여러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현상유지설'이 가장 유력하다. 상당기간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고 당면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장쩌민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수파들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티베트와 신장 위그르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은 중국의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14전대회(全大會)에서 1백만만 혼들

림 없는 기본방향으로 선언된 현 개혁개방노선의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 대외정책의 기초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적 국제환경의 조성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농업·공업·군사·과학기술의 4대현대화를 달성하여 21세기초에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상당 기간동안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중국의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 및 그 목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이 추구하는 동북아정책의 1차적 목표는 긴장해소를 통한 지역 안정의 도모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왔던 '반과권주의(反霸權主義)'를 동북아정책에 적용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분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인식이다. 중국은 작년 4월 미일정상회담에 발표한 '미일신안보 공동선언'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탈냉전후 동북아정세는 한마디로 '정중동(靜中動)'의 양상이다. 즉 주변강대국들은 지역안정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질서재편기를 이용해 동북아에서 경쟁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대중화주의'와 미·일의 '패권주의'가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 있다.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체제에 한국을 끌어들여 이른바 3각동맹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 및 분쇄하려 한다. 여기에서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내에 두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반면 중국은 21세기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탈냉전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질서재편기는 중국에 영향력 확대와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북한 붕괴를 막음으로써 한반도에서 현상과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미공조나 동맹관계의 강화일 수 있다. 한반도에 한국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족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북 한봉쇄정책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악화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축색을 채워 정책의 선택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의 대미일 변화·편향화는 통일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탈냉전 이후 보여지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격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의 다변화와 자주화이다.

사설

하나됨을 위하여

봄이 왔다. 겨울내내 날치기 풍과, 한보사태, 황장엽 망명 등으로 공공 일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봄비가 내려 무겁고 칙칙했던 겨울 옷을 벗고 잔뜩 움츠렸던 어깨도 펼 수 있게 되었다.

봄이 오고 새학기를 맞아 이제 학교는 발랄한 신입생들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과감히 단행된 채·실장 인사발령과 28일 성황리에 개최된 '비전 동국 1백년'에서도 동국발전의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국 1백년의 주역이 될 신입생들도 '동국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터와 오리엔테이션 참가에 분주하다. 지난 2월15일부터 총학주최로 2박3일간 진행된 새터에 참가해 선배·동기들의 얼굴을 익히는가 하면 26일에는 학교주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강연을 듣고 수강신청을 했다.

그러나 눈앞을 반짝이며 열심히 하려는 신입생들은 학교와 학생회의 줄다리기에 사이에서 여러동떨어진 기분이다.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두 행사를 두고 어느쪽을 참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회의 새터를 나몰라라 하고, 학생회는 학교의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무시한 채 일정을 잡아 영락없는 '따로국밥'의 형상이다. 학교와 학생회가 하나가 되어 내용성 있고 즐거운 신입생 환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는 다른 학교의 소식을 접할때면 본교의 상황이 연상돼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와 학생회는 '학생'을 공통 분모로 한다. 학교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을 학생회에서 책임져주고 학생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학교가 지원해주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대화와 화합의 모습은 없고 원칙과 강경만이 난무한다. 실제로 학생회관 화재 발생시에도 '화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방화내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신학기가 다 된 지금은 밤 12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불일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매년 동국에 신학기가 되면 흥여처럼 '동국공'으로 몸살을 앓는다. '동국금 협의'나 '동국금 협상'은 간데없고 '동국금 부정'만이 치열하게 진행된다. 말하는 자는 있는데 들으려는 자가 없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강행하는 자가 있어 과격해지고 만다.

이제 신학기가 되었고 동국 1백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오랜 전통, 순수민족자본으로 건설된 동국은 교육시장개방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아 대화와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인사발령을 통해 새단장했을 학생회와 공사를 통해 다시 깨끗해진 학생회관에 입법할 학생회가 대화를 통해 '동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질지 기대해본다.

◆불심검문 타당성 있어야 한다

경찰 판단에 근거...법조항 적용 논란 공안분위기 편승한 권력남용 안될말

지난 2월 21일을 전후로 등교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경들의 느닷없는 불심검문에 짜증과 무손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중앙위원회와 한총련 필기부장이 본교에서 치뤄질 예정이라는 이유로 경찰측이 학교를 일원봉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모르는 학생들은 학교를 올라갈 때 보통 서너번의 신분증 제시와 가방검사를 받고 이로 인해 시간지체 및 혼란에 불편을 느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본교 주변에 업무를 보러온 사람들이나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 과연 이러한 검문은 타당한 것일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불심검문의 조항을 보면 제1항 경찰

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항 그 장소에서 전항 외 질문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때는 질문하기 위하여 그 자에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에 규정하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질문을 받을 때 경찰관은 피질문자에 대하여 신체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다. 이 법을 조항에는 검문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항 하나 하나가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보단 주관적으로 이해되어 법조항들에 대한 논란 여지가 많다. 그렇기에 불심검문에 대한 입장이 해석하는 이들에게 다르다.

검문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해마루 법률사무소의 김안희 실장은 "검문하는 경찰은 반드시 정복차림으로 해야 하며 사복형식은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검문을 할 수 있고, 현행법이나 간접으로 여겨지

는 사람과 그밖에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또한 가방이나 소지품 검사 또한 걸로 볼 때 남을 상해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법률사무소인원은 "이것은 법조항의 해석문제에 달려있으며 요즘 같이 공안분위기가 심화된 경우엔 그 해석이 더욱 정부의 공안 분위기에 편승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공권력의 남용이라고도 평가한다.

한편, 지난 15, 16, 17일 사이엔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준비중이던 문과대 부학생회장이 서훈령 새내기 자료실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어 1시간을 경찰서에서 보냈다. 이후 계속된 불심검문 중 본교생 이동우(전기공3)군과 이연석(컴공4)군이 가방에 학생회 문건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돼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달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불심검문에 가방검사는 불법인 점 △불심행행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조치 되는 것이 일반

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치안본부로 이송된 점 △영장도 없이 야간 가택수사를 한 점 △불심검문 상황 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거와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본교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는 "대략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학생증이 없다고 출입이 통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원의 신성함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고, "가방 및 소지품 검사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조항 해석에 대한 논란을 꺼내지 않더라도 본교에서는 21일 이전에도 21일 이후에도 외형적으로도 실제로도 집회나 시위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문은 25일까지 계속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이 불편과 짜증으로 밖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은 남들만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불심검문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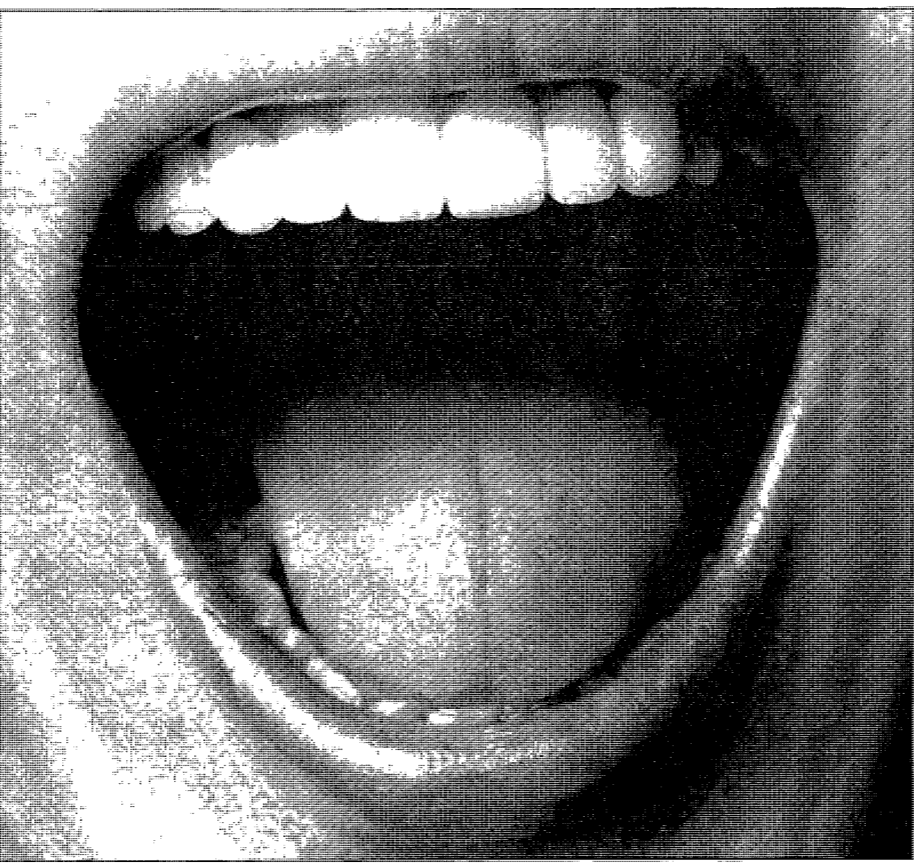
(최정식 기자)

통국안평



맛있는 세상, 오투기

실컷 드세요!



자~ 이제 맘껏 드세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않는 젊은 날의 도전과 먹을수록 감칠맛 나는 든든한 학문·가공은 새롭달콤한 사랑이라는 디저르트도 필요하겠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않는 담백한 우정에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한잔 술의 진한 맛도 젊은 날의 묘미겠죠. 무엇이든 할 줄 아는 것과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경험한 것과 하지못한 것에는 그 삶의 깊이가 다릅니다. 젊음이라는 그이름으로 대학이라는 맛있는 세상에 놓인 갖가지 버거리들을 가리지말고 골고루 실컷 드십시오!

대학이라는 맛있는 세상에 놓인 젊음의 버거리들 - 실컷 드십시오!



주식회사 오투기
오투기는 맛있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안기부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개혁 안기부' '개혁 안기부'로 공포로부터 자유냐 공포에 의한 지배냐...선택 필요

곽 노 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국민적 저항의 결과로 정권하 노동법과 안기부법 재논의의 국면이 최근 한반도 및 '안보' 사태 속에 파문해 좀처럼 나아질 듯하고 있다. 노동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정부여당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흔들리 난다며 광범위하게 다량 해 고용의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기부법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우선 걸려있는 쟁점의 성격상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 안기부법 논의는 그간 검찰과 안기부 중 어느 기관이 친안기부파 수사권을 가져야 보다 바람직하느냐는 식의 단일 쟁점에 대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양자택일이 가능한 쟁점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안기부법은 노동법과 달리 이른바 운동권이나 진보인사들을 넘어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어려운 쟁점이 있다. 물론 안기부에 대한 공포와 불신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존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현상성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은 안기부가 무시위서라도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더욱이 대부분의 심리가 확인되는 날이면 안기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모른체 하기 쉬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듯하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최근의 황장엽 망명과 이한영 피격사건을 기화로 하여 안기부의 권한과 조직의 대폭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세적으로 나올 기세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일부 국민들의 이러한 대응은 이른바 보통으로 조성된 공포와 불안을 빌미로 더욱 커다란 화근을 불어넣는 점에서 이면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듯하다. 무엇보다도 안기부법 개정의 쟁점은 불안을 불어넣는 불안을 고조시키는 불안의 악순환만이 초래될 뿐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안기부법 국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한 번 생각해 보라. 안기부가 대체 어떤 기관인가. 이른바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기부'하면 적어도 공판이 주목되고 무서운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닌가. 그렇다. 안기부에 대한 지배적 정서는 여전히 공포와 불안, 의혹과 불신이다. 정신 병동마다 안기부 피해 광상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끊임 없는 사실은 이를 웅변한다. 모르면 해도 안기부법이 93년 말 이전으로 회귀할 조짐이 드러난 지난 96년 중반 이래 이러한 병리적 불안정리는 부쩍 심화되었을 것이 틀림없

다. 물론 안기부가 간첩사육과 국가안보라는 본래의 기능에 처음부터 충실했던 것 이렇듯 진기한 현상이 발생했을 리 없다. 아니, 현 정권이 안기부의 과거 불법비행에 대해 최소한의 과거 청산작업만이라도 수행했다면 이러한 사회심리에는 변화가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자 안기부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의 손으로 넘기는 정도의 미미한 '개혁조치'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그 결과 안기부는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심리적 위상을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개혁 안기부'조차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자 불신의 근원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 문민정부의 최대업적의 하나로 청산되었던 안기부 수사권의 축소 조치가 안기부의 일방적 '로비' 아래 그토록 쉽게 원상회복된 이유와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억해오지만 이렇듯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안기부가 실지회복을 선언하고 나서자 93년 말에 수사권의 일부 축소를 환호하던 바로 그 입과 손으로 안기부의 수사권 부활 시도를 찬양, 고무 하기에 바빴다. 심지어는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검찰조차도 썩소 한 번 못한 채 안기부가 자신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언필칭 개혁 안기부의 권세는 이렇듯 우리 사회의 권력중심인 언론과 검찰의 권세를 간단히 압도해 버릴 정도로 막강했다. 그렇진대 날치기 법안에 의해 자신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믿는 오 늘날의 '개혁 안기부'가 얼마나 세도를 부릴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안기부법의 재논의는 바로 이렇듯 안 기부가 가일층 특의만만해지는 상황, 그것도 전례없이 강력한 복종환과가 붙어 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 징이다. 지금은 또한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이 유례없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다소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 쉬운 시기이다. 하지만 공포와 불안에 질려있는 인간과 사회로부터는 아무런 선한 것과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공포와 불안에 굴복하여 인격의 깊은 근저로부터 비이성적이고 사악하게 타락할 것인지 아니면 이성 과 희망으로 결연히 맞서 각자의 존엄과 자유는 물론 우리사회의 민주질서를 수호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벼랑끝 시점에 와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모두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에게 과연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지 아니면 공포에 의한 지배를 원하는지 진 지하게 묻고 그 답변에 따라 필요한 실천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 3·1절 기념 심포지엄-민족적 관점에서 본 역대정권의 대일 정책 비교

식민지배 청산없는 정략적 차원의 정책 문제 경제·문화적 종속 초래...한일협정 개정 필수

조국 해방을 위한 거대한 투쟁이었었던 3·1운동. 아직까지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엔 78년 전의 열정이 솟아 있다.

지난 2월 27일 종로성당에서 3·1절 기념으로 '민족적 관점에서 본 역대 정권의 대일 정책 비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민족문제 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 심포 지엄은 역대 정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대일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제를 규 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제1주제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 대 정권의 입장'과 '정책 비교'로 운영된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발표했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 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일정책을 폈지만 그것은 식민지 지배 청산이나 민족의 자주성 확립과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이 정권의 대일정책은 개인적 반일감정이 크게 작용 했으며 당시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일감정 에 편승해 위악한 정권의 정통성을 호도 해 보려는 정략적 측면이 강했다. 그리고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54년부터 일본이 정경분리를 내세우며 소련과 접근을 꾀하는 등 공산권

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펴자 '용공 일본 분쇄'를 내세웠던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역시 군사정권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는 차원에서 반일감 정을 부추기는 등 정략적 차원에서 대일 정책을 추진했다.

김영삼 정권은 역사인식이 결여된 미래 지향 구조를 내세우고 있다. 식민지 지배 는 합법적이고 유요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해석을 따르면서 식민통치 행위를 과 각적 방법이나 비인도적 행위만을 사과 한다는 의미의 일본 사과에 김영삼 정권 은 '용기있는 발언'이니 차라리 문제를 끝 냈다"느니 하는 단순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인 김근 한겨레 논 설위원은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면 사회의 기강과 규율이 무너져 도덕, 윤리의식이 실종되며, 민족적 자존과 위엄을 갖추지 않으면 일본에게 과거청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의 반성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2주제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 의 대일 종속화'와 발제자는 전기호 교수 (경희대)로 통계적 자료를 제시해 우리나라의 대일 종속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개방화,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대폭적으로 증가하 여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은 현충 심화, 확

대되었다. 1994년에 백역달러가 넘었고, 62~96.10월까지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은 1천2백34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배가 넘는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은 특 히 90년대에 와서 가속적으로 증가해 왔 으며 우리경제에 큰 악영향을 드리우고 있 다.

이에 조영건 교수(경남대)는 "해방전 30년의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 일 경제관계를 논할때 미국을 빼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 주도적 논 리가 되어 있는 '일제 36년 식민지 경제유 산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을 했다.

제3주제로 임현영 문학평론가의 '대일 문화정책과 교류의 문제점'이 이어졌다.

그는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 문화는 극적분명의 문화라며 "일본 문 화가 적극적으로 멀어지거나 퇴폐적이기 때 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현실적으로 대일문화정책이 없는 점을 아쉬워 했다.

발제가 끝난후 김철 교수(연세대)는 현

문화는 본질적으로 일제식민지의 확대 재 생산이라고 같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고 민해 봐야 한다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후 종합토론에서는 전교수의 발제는 너무 비판적이다. 경제 과탄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희망적 경 제대책은 없는가? 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 전에서 올라온 한 노인은 우선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서 "정부와 법관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일방적 사과를 해선 안 되고 진실으로 뒤우치고 국민 앞에 사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사회자인 강창일 교수(배재대)는 젊은층 은 역사불감증에 걸려있고, 노인들은 너 무 감정적이라는 보수적 의견을 내세웠고 있다며 자기인식에서부터 우리 책임을 자각하여 온국민이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3·1절 기념 학술심포지엄. 젊은층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자리 였다. (김용환 기자)

사회대선

한총련 증앙위

총노선·조직체계 논의

오는 28·29일 동맹휴업 결의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일시대의=강위원·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소속 전국 2백여대학 총학생회장단 이 모이는 정기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가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정부의 일선분쇄방침과 결점의 삼엄한 경계속에 장소를 몇차례 옮기며 치뤄졌다. 이번 중앙 위는 출범 5돌을 맞는 한총련이 올해 1 년동안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통일운동과 대선투쟁방침 등에 대한 윤곽 을 잡는 자리였다.

강위원(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일시 의 중 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중앙위는 제5기 총노선 토론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 합(이하 전국연합) 사업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총련은 지난 연세대 통일투쟁을 겪 으면서 8·15통일행사가 하나의 대회로 치뤄 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올해의 통일대회는 8·15대회의 본질적 의미인 남·북·해외동 포가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서로 만나지 않으면 통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하 나의 중앙행사 개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남·북·해외 함께하는 통일행사 결정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남·북·해외 함께하는 통일행사 결정

대선과 관련한 한총련의 투쟁방침은 반 김영삼 반신한국당 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글, 의장선출, 총노선 확정 등이 진행 될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3월 14일부터 16 일로 공교했으며 다가오는 3월 28일과 29 일 김영삼 정권의 정국운영에 항의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한글, 의장선출, 총노선 확정 등이 진행 될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3월 14일부터 16 일로 공교했으며 다가오는 3월 28일과 29 일 김영삼 정권의 정국운영에 항의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음악로

선택

MBC 일요음악회

지난달 26일은 97 학년 신입생들을 위 한 'MBC 일요음악회' 공개방송이 있는 날.

오후 6시 수강신청 을 한 신입생들은 지 금쯤 장충체육관에 모이고 있었다는 생 각으로 그곳으로 향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 직 음악내에서 선택 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만 가득 메운 행사장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그곳은 가득 메운 동국인보다 텅 빈 자리들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작년 비를 맞으면서도 가득 메워진 'KBS열린음악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불과 1천여명의 관객들. 진행 자 역시 학생이 너무 적다고 말하며 '녹화 사상 최저'라는 소리까지 한다.

설렘한 체육관 분위기 속에서 행사 는 시작되고 차츰 열기를 더해간다. 마 침내 최고 인기를 누리던 김중서의 등 을 거치지 않고 만원일치로 통과되었 으나, 사업방향 승인에 대한 안전에서 8·15 통일행사로 관련, 대회기조와 대회주최방 식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는 노래 뒤를 더 부러워 확장하고 행 사는 끝을 맺는다.

여기저기서 자리를 떠나지만 가족끼리 는 신입생들과 부모 는 함께 가져온 간식 까리를 먹으며 답사 를 나누는 모습도 보 인다.

오전 그 많은 신 입생들은 어디에 있 는 걸까. 피곤해서 짐으로 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 며 후문까지 걸어왔다.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와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도로 구석에 있는 구로 흔적들 그들은 이번 행사를 포기하고 선배와의 술자리를 택한 것 이다.

대외적인 행사를 뒤로 한 채 그들은 12년동안 금기시 되었던 술을 택했다.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장면이 머리 위에 떠오른다.

행사장에서 어머니와 다정한 노래를 함께 부르던 신입생과 술에 취해 비틀 거러며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신입생.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태훈 기자)



Model	Epson Stylus Color 500	Epson Stylus Color Pro	HP DeskJet 400 882C
Price	\$229.95	\$249.95	\$249.95
Resolution	720 x 720 dpi	720 x 720 dpi	600 x 600 dpi
Print Speed	17.5 ppm	17.5 ppm	17.5 ppm
Print Cost	2.2 cents	2.2 cents	3.0 cents
Availability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printer: You can get great output at relatively slow speeds or good output at average speeds. For example, printing speed was good but not outstanding on application tests in default 360-dpi mode, but the times slowed when the Stylus Color 500 was run in the 720-dpi mode that produced the terrific output.

The Stylus Color Pro is unique in its ability to print at 720 dpi on plain paper.

“PC매거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美 PC매거진 선정 최우수 컬러 프린터 -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가 세계적인 PC전문지 미국의 'PC매거진'이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개인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출력속도, 선명도, 호환성, 경제성, 편리성을 비롯, 구입 후 고객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정확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된 스타일러스 컬러 500H-이제, 잉크젯 프린터도 세계가 인정한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프린터입니다.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200H

- 1600dpi 해상도 720 DPI 초해상도 500H
- 속도 48ppm, 컬러 15ppm의 고속 출력 500H
- 1670mm True color의 색감은 표현
- 국내 최대의 잉크탱크로 저렴한 유지비
- 에드와 카트리지 분리로 카트리지 교체 용이
- 윈도, DOS계, 매킨토시용 출력 가능
- 합금 오토캐시, 리프트 프로그래밍 지원
- 이클립스인 CS, KSSM+

삼보컴퓨터 http://www.trige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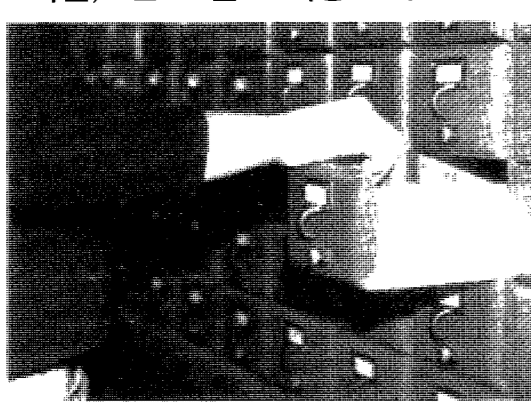
동대입구 지하철역에서 내려 중문을 거쳐 정각원 앞을 지나다, 불상앞을 지나서 체육관 옆을 지나 학림관에 도착한 그는 휴 한숨을 쉰다. '학림관이 참 멀구나...' 그의 이름은 새내기. 새내기를 위한 지도를 마련해주고픈 마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네곳(도서관·보건소·시청각자료실·식당)을 선정해 이용방법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편집자)

새내기 길잡이

◆ 도서관

'도서관은 대학의 꽃'

대출, 5권 10일간 가능... 학생증 지참



도서관은 대학의 중심이며 꽃이라 불리운다. 대학이 흔히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우지만 그 상아탑을 이루게 해주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곳이기도 기본적인 이용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할 때 전체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일반열람실과 컴퓨터 자유이용 공간 △2층=일반대출실과 과제도서실 및 여학생휴게실 △3층=정기간행물실 및 마이크로 자료실, 참고도서 및 학위논문실 △4층=일반열람실과 휴게실로 이루어져 있다.


대략적인 각 실의 이용방법 살펴보면 △일반대출실=외국도서와 과제도서실에 비치되지 않은 국내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대출할 때는 책을 목록에서 찾아 도서차림신청서에 기입한 다음 학생증을 제시한다 △과제도서실=전공학과 과제를 작성에 직접 필요한 전공학술서와 교양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개개적으로 운영되어 원하는 책을 학생증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5권 10일간 대출할 수 있다 △불교학 자료실=국내외 불교에 관련된 단행본, 참고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및 인도학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정기간행물실 및 마이크로 자료실=전문학술잡지를 비롯한 교양지, 대학간행물, 연감 등의 국내외 정기·부정기간행물과 함께 각종 신문이 있으며 대출은 안된다 △참고도서 및 학위논문실=각종 목록, 도서해제, 서지, 기사 색인 백과사전, 편람, 지도, 도감 등의 참고자료와 석사, 박사학위논문이 소장되어 있다 △일반열람실=각종 시험준비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총 2천2백여석이 있다.

한편, 도서관 출입시엔 반드시 학생증이 있어야 한다. (최정식 기자)

◆ 보건소

'감기부터 X선 촬영까지 나에게 오라'

무료이용 가능한 동약의 작은 병원



본관 2층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은 신체검사를 받은 새내기가면 모두 알 것이다.

새내기뿐만 아니라 재학생, 학교 직원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언제라도 부담없이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다.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있는 보건소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팔과상, 열상, 화상, 좌상, 타박상, 자상, 교상등), 흉부X-ray, 임상병리, 한방내과, 한방부인과등 웬만한 질병과 상처는 학교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임상병리실에서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대·소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X-ray촬영실에서 흉부촬영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학기중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방학중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이다.

또하나 보건소의 자랑거리인 안정실은 남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되며 공부·술(?)등에 지친 학생들이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그의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고 싶은 동대생은 동국대 방배동 한방병원과 분당병원을 이용하면 10~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내 집같이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건강만 97학년 새내기가 될 것이다. (오)

◆ 외국어교육원

'3천원이면 6개월간 OK'

시청각자료 마음껏 이용, 외국어 향상



여유롭게 얻어온 영화를 감상하고 위성방송도 시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동국관 1층 1층에 위치한 시청각 자료실이 바로 그곳. 외국어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시청각 자료실은 오디오, 비디오등의 시청각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 한정과 학생증 그리고 대출증 발급비 3천원이면 외국어 교육원에서 대출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증은 방학기간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잃어버렸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재발급은 사진과 학생증 만으로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엔 9: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이며, 방학 중엔 10:00부터 오후 3:00까지이다. 점심시간은 각각 1시부터 2시,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 시간은 대출은 물론 시청각 자료실 이용도 할 수 없다.

이용 좌석은 총 1백20석인데 비디오 좌석은 그중 30석이다.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보면 오디오 테이프 3천여개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 5백여개, 관련 서적이 1천여권 구비돼 있다.

시청각 자료실은 설치 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대출실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 자료실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하고 있다.

영어나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여러 언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교양시간에 놓친 하나의 문장도 손수 찾아 들을 수 있다. 또한 NHK나 Star TV, CNN도 언제나 시청할 수 있다. (진)

◆ 식당

'우리학교 식당이 최고'

다양한 메뉴·영양 만점

본교에는 모두 10개의 식당이 있다. 학생들의 음식 선호도 변화로 분식점이었던 '보리수'가 방죽 공사를 마치고 이반학기부터 양식코너로 바뀌는 등 식당의 질적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막 대학생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의 편리한 식당이용을 위해 각 식당의 특징 및 메뉴, 가격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량관 학생식당=가격은 전원에서 전오백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메뉴는 2중 세트 메뉴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하루에 한가지 메뉴의 분식을 제공한다. 학기중에는 하루에 3천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크고 이용도가 높다.

△동국관 학생식당=가격선과 메뉴는 다량관 학생식당과 비슷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한다.

△동국관 교직원 식당=가격은 2천2백원에서 3천4백원으로 한식 2중 세트 메뉴이다. 동국관 학생 식당과 같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이 이용해도 무방하다.

△다량관 교직원 식당=한식과 양식을 함께 하며, 가격은 2천5백원에서 4천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론 학생도 이용 가능.

△보리수=다량관 2층에 있고, 따뜻한 일두커피가 생각날 때 적격이다. 양식과 햄버거, 후라이드, 피자 등 패스트 푸드류를 취급해 가장 신세대의 향기가 풍기는 식당이다. 가격은 6백원에서 3천원이며, 오전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국관 휴게실=김밥, 떡볶이, 편두루 등 분식을 취급하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밥맛이 없어 간단한 분식이 먹고 싶을 때 찾으면 좋다.

△명진가든=명진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식과 튀김을 판매한다. 가격은 6백원에서 천2백원이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아리수=원충관 3층에 있고, 분식과 김밥을 배식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락방=해화관 옥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자와 음료를 판매한다. 오전 9시에 개점해 학기중에는 오후 9시, 방학중에는 오후 5시에 폐점한다.

△문화관 그림=개교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페테리아식 주문식이다. 가격은 4천원에서 2만원에 이른다. 본교 식당중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동문회 등 기념행사에 자주 이용된다. (김용환 기자)

◆ 새내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2월15일 총학생회는 새내기 새로배움터에 참가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백73명이 답했으며, 결과는 소수점아래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했다. (편집자)

1. 96년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은 노동법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새내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민주적인 행위이므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안기부법은 무효다.

합의 처리되지 못한 과점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통과시킨 것이니 할 수 없다.	74%
민 주 주 의 를 역행하는 정권은 퇴진되어야 한다.	11%
거수기에 불과한 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8.2%
합의 처리되지 못한 과점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통과시킨 것이니 할 수 없다.	3.9%
비민주적인 행위이므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안기부법은 무효다.	1.8%
2.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에 대한 의견은?
 비싸다.

비싸다.	78.6%
적당하다.	7.3%
모르겠다.	13.7%
싸다.	0.5%
3. 국가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재정 확보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방비를 축소하고 교육비를 증가시킨다.

교육 재정 확보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방비를 축소하고 교육비를 증가시킨다.	36.5%
주한미군 주둔비와 기지 사용료를 미국에게 받아서 교육비에 충당시킨다.	36.5%
유류세, 담배세 등에 포함된 교육세 부담을 더욱 확대한다.	24.9%
교육 재정 확보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국방비를 축소하고 교육비를 증가시킨다.	2.1%
4. 전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위해서 공동연대투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등록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거부스럽다.

등록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거부스럽다.	44.6%
등록금 동결을 위해서 공동연대투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19.7%
등록금 동결을 위해서 공동연대투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21.4%
등록금 동결을 위해서 공동연대투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14.3%
등록금 동결을 위해서 공동연대투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9.7%

正道경영·초우량 LG

최고의 꿈을 이루기 위해 21세기에 다녀왔습니다.



국기를 막론하고 우리가 돌아본 극장의 공통점은 바로 관객까지 개념이었다. 슬로건만 관객중을 내세우고 있는 건 둘째치고라도, 다양한 관객서비스 아이디어와 하나같이 호텔 직원같은 친절함으로 극장 상황을 체크하던 직원들을 보며 결국 선진 영화환경을 이끌어가는 힘은 첨단 기술력도, 복합 입지도 아닌 관객에 대한 가치 개념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탐방의 제1수확은 워니니해도 극장은 표창사라는 생각이 깨어진 것이다. 극장 대형화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대시설의 중요성 증대이다. 복합 영화관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영화 외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21세기 극장사업의 최고 화두인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96 LG 21세기 선발대 문화, 교육, 예술분야 대상팀 연세대 (채희승, 권혜진, 김주연, 유승)
 테마: 세계의 복합 영상문화 공간.
 한국형 영상문화 중심지의 내일
 탐방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LG/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

◆ 격월간 무크지 '히스테리' 창간

과감하고 도도한 인디정신·자신감 넘치는 독립만화 잡지 "만화예술은 무한한 미래의 표현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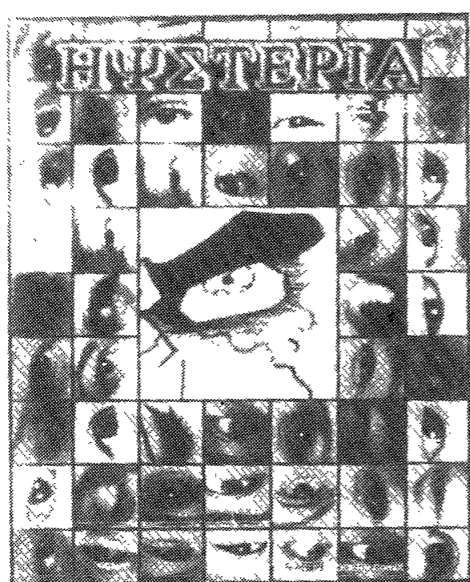
문화 전반에서 만화적 요소를 찾으려는 노력을 책 한권에 압축하기 위해 '만화예술은 주제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무한한 미래의 표현예술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화잡지가 나왔다.

바로 '슬랩샷', '짱구는 못말려' 등 액션만화가 범람하는 현실속에서 언더그라운드 만화 즉, 독립만화를 추구하는 격월간 무크지(잡지와 단행본의 성격은 함께 가진) '히스테리'가 창간된 것이다.

이 책에는 만화가 지방생이 상업적 만화의 비애를 느끼는 오열진의 '선생을 죽여라', 만화의 표절을 비판하는 김동고의 '나의 표절유산 답사기', 만화를 상업적 상품으로 인식하는 노미후의 '편집실' 등 기성 만화계를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상업성에만 치우친 수많은 만화가와 만화, 반박듯이 일삼는 표절, 천편일률적인 틀 속의 상업만화 시스템 속에서 한국 만화의 예술성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작가주의 모임 '별'은 달랐다. 10명 정도의 젊은 만화작가들의 모임이었던 별은 자신감 넘치는 열



철학·작품성 있는 라이브 만화 기대

정과 약간의 건방져 보이는 인디정신을 기반한 독립만화를 추구했다. 이들은 그들의 정신을 작년에 두번 발간된 무크지 '별'에 나타냈다. 그

후 이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히스테리'를 창간했다. '히스테리' 편집담당 김정연씨는 "독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다소 난해하다는 독자의 예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는 만화메이아를 위한 독립만화 추구에 목적이 있어요"라고 말한다. 독자들은 기존

만화와는 색다른 무언가를 마음 한 구석에서 갈망하고 있었다. 그런 실감정신에 입각한 독립만화 무크지 '히스테리'는 독자들에게 만화예술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만화평론가 백정숙씨는 책 끝머리에 "히스테리"에 만화작가와 독자가 유희과정의 왜곡없이 만나는 생생한 라이브 만화. 그리고 철학이 있는 작품성이 뛰어난 만화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사실 '별' 이외에도 저예산 독립만화동인 '화강', 홍익대 '네모라미' 등 상업주의에 반발하는 독립만화 집단이 있다. 비록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들이 있기에 무한한 표현의 자유와 발전적 작가관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만화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며 일년에 한 번이라도 전시회를 하거나 출판물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만화가 아닌가 한다"는 '히스테리' 발행인 신일섭씨의 말에서 한국 만화의 발전된 미래를 기억해 본다. (오)

달 하나 천 경에

즐거운 책 읽기



오늘도 또 한 선생님이 걱정을 했다. 요즘 학생들이 도무지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 걱정해보았자 소용없다. 책읽기 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 "그까짓 영화 안 만들면 어때"라고 말한 사람은 전 생애를 영화에 바친 알프레트 히치콕이었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그 까짓 책 안 읽으면 어때, 독자인 이 곧 교양인요,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환상이다. 수권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광광한 권위주의자라든지 사기꾼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독서가 곧 교양과 인격의 척도라는 교조주의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일야말로 즐거운 독서, 책과의 평등한 사람의 시작이 아닐까.

프랑스의 인기 작가이자 교사인 다니엘 페나고는 그의 독서론 '소설처럼(Comme Un Roman)'에서 "책을 읽다"라는 동사가 '꿈꾸다' '사랑하다'와 함께 명령어로 바꿀 수 없는 단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랑하라', '꿈꾸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명령자의 뜻대로 실행될 수 없듯이, 읽기 싫은 사람에게 '읽어라'라고 명령해보았자 그저 읽는 책하거나 이내 수면제 대응으로 활용해 버릴 뿐이다. 그래서 페나고는 책읽기를 보다 친근한 일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독자의 10가지 권리를 제창하고 있다. (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모두를 실천하고 있다)

- ① 읽지 않을 권리(나는 기본이 좋지 않거나 장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하튼 읽고 싶지 않을 때는 안 읽는다)
- ② 건너 뛰어서 읽을 권리(새로 발간된 전공 서적을 읽을 때 내가 잘 쓰는 부분이다)
- ③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파우스트는 고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 못 읽었다)
- ④ 건너뛰어 읽을 권리(내가 좋아하는 '베두나 시집'은 하도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다 외운다)
- ⑤ 손에 잡히는 대로 읽을 권리(이현재의 만화를 읽다가 갑자기 막스 베버를 읽은들 어차라)
- ⑥ 작중 인물과 자신을 혼동할 권리(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면 햄릿이 되고 또 가끔 홍길동이 되기도 한다)
- ⑦ 읽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권리(침대에서 읽고, 기차에서 읽고, 수영장에서도 읽는다)
- ⑧ 여가시간이 부족해서도 읽을 권리(내 특기다)
- ⑨ 소리내어 읽을 권리(좋은 겨울이나 감동했을 때는 저절로 난다)
- ⑩ 남 모르게 읽을 권리(책읽기의 장점 중의 하나는 그 즐거움을 혼자만의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열거하고 나니 "그까짓 책"하고 말해버린 내자신에 대해 더욱 용기가 난다. 선생님도 이 지경이니 나의 영특한 학생들은 이제 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김 무 곤 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화단신

연극 이야기

◆ 늑은 도둑 이야기...극단 차/이/무의 레퍼토리 공연으로서 이상우 연출로 정보 소극장에서 오는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공연. 문의 (3676-0114)

◆ 테...극단 제172회 정기공연으로 한국 연극계의 독보적 존재 오태석의 작,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공연. 문의 (274-1151)

음악 이야기

◆ 시나위 콘서트...국내 락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록그룹의 신화적 존재인 그룹, 시나위 6집 앨범판매와 결승가정을 위한 콘서트를 오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공연. 문의 (717-8880)

◆ 박희기 콘서트...김미모는 음색과 소박한 무대매너로 이야기가 있는

는 콘서트. 마당세실극장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연. 문의 (737-8836)

영화 이야기

◆ 독립애니메이션 축제...상업주의와 독립하여 예술활동을 지속해 온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작품.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우도 쌍용 300층 씨네마테크에서 상영.

일정은 △4일=엘리스, 시인의 생애와 3편 △5일=마법사, 피리부는 사나이의 1편 △6일=한 여름밤의 꿈, 남의 비밀 △7일=시인의 생애, 피리부는 사나이의 4편 △8일=엘리스, 한 여름밤의 꿈의 2편 문의 (783-1001)

◆ 코엔영화제...씨네21과 삼성영상사업단이 영화 '파고' 개봉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오는 7일까지 코아트홀에서 코엔영화제를 연다. 영화제에선 코엔 형제의 전작 6편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필러스 크로싱)만 제외됐다.

일정은 △3일=블러드 심플 △4일=아리조나 유괴사건 △5일=바톤 핑크 △6일=허드서커 대리인 △7일=파고.

서평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펴냄: 고려원 지은이: 박수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요즘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단지 우리에게 받고 돈 주는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물음을 가지게 하는 책이 바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책이다.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효(孝)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진부한 주제로 퇴색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한 책이 나왔다 하면 지레 떠날 것이라든가 선일권을 펼쳐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구구절절이 진부하거나 따분한 내용을 서술하는 책이 아니다. 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점점 퇴색되어가는 효에 대해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옛 효행설화, 유교·불교·기독교 등의 가르침에 나타난 효행과 연관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담

아내고 있다. 돈을 위해 부모를 살해하고 노모를 학대하는 등 윤리적 아노미에 빠져있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효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게 해주는 시간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된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서로가 해야 하는 역할, 결혼후 시부모에게 행해야 하는 효행과 이혼을 한 후의 효행 등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타의 환경에서의 효행방법을 제시해준다.

효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미덕중 으뜸이었다. 또, 가장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인간 관계인 만큼 중요시여겨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대세이며 효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그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는 이렇듯 효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날로 사라져 가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속에서 효를 주제로 집필한 효행 수필이다. 그 내용 또한 우리들이 흔히 접하거나 알고 있는 효행담과 중국고전에 나타난 여러 효행 설화로 구성되어 있어 읽는 이에게는 재미와 훈훈한 교훈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책의 구성은 모두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 '나무는 고요히 있었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으면'은 우리 전통사상에 깃들여져 있는 효의 이

아기를, 2부 '효경의 잘못과 슬로운 지혜를 찾아'에서는 효경과 성경에 실린 효행담을 다루고 있고, 끝으로 3부 '어머니, 부디 극락정토에 이르소서'는 불교 경전에서 발췌한 여러 효행담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947년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하여 본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전 통장회 감사이기도 하다. 재단법인 동우 장학회 이사, 사단법인 서울 청년회의소(JC) 홍보위원장 및 총무이사등 크고 작은 단체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는 고양인 양평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양평발전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더불어 함께하는 하이텔-

하하하... 하이텔에서 놀자

네터존의 고향 하이텔-

하이텔에는 동국대통신호화개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go ugu

앞서가는 세대의 봄은 하이텔에서 시작된다!

하이텔 봄축제 한마당

꿈과 희망으로 봄을 맞는 새내기 여러분!
보다 멋진 새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이버스페이스로 오십시오.
하이텔이 펼치는 봄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당장 하이텔에 가입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깜짝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이텔에 가입하는 신규 이용자 중 장상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행운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 신규 가입자를 위한 특별 시은행도 실시합니다.

대우의 이름으로 세계를 누린다 - 누비라

■ 시은품
대상 (1명): 대우자동차 누비라 1대
1등상 (2명): 팬티용 PC 2대
2등상 (5명): 휴대전화 CT-2 2대
3등상 (100명): 인터넷 어드벤처(CD-ROM) 100
※ 100명 추첨은 3월 31일 오후 6시에 실시합니다.

■ 여성이용자를 위한 특별 시은행사
여성상 (1명): 팬티용 PC 1대
특별상 (5명): 휴대전화 CT-2 2대
= 500, 1000, 3000, 5000, 10000원액 여성이용자 전용
행운상 (100명): 인터넷 어드벤처(CD-ROM) 100개
※ 신규 가입자에게는 HYTEL.pak(하이텔 전용 이미지 7.0, 7.3)을 무료로 드립니다.
※ 가입 / 문의 : 080-022-1410, (02) 513-2200

정보문화의 꽃
한국PC통신
Korea PC Telecom Co., Ltd.

97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열려

특강·수강신청 실시...일요음악회 1천여명 참여



신입생을 위한 학교측의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6일 정충체육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등 약 3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97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기치아래 치러진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교홍보비디오 상영, 총장특강, 손짓사랑회 공연, 교가·응원가 배우기 등으로 진행됐고 오후에는 각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을 실시했다.

이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동국대학교 신입생과 함께'라는 모토로 MBC일요음악회가 열렸다. 김중서, 일기예보, 박학기, 김복경, 바리톤 김현수, 유희정 등이 출연한 이번 공연은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 등 약 1천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부모님과 함께 온 건축·토목

공학부 1학년 임수영 양의 부모님은 "수업이 고등학교때 입시에 열매여 있다 물러나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며 "학교분위기도 좋고 음악회도 보려고 왔다"고 함께한 이유를 설명했다.

MBC의 제의로 열리게 되어 본교가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없이 열리게 된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음악회의 특성과 수준 그리고 순조로운 진행으로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정작 이 시간을 즐긴 신입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때 신입생들 중 상당수는 매년 있어왔던 선배들과의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 날의 술자리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닌 입학하기전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모아

는 자리가 때문에 선배배간의 얼굴도 익히고 동기도 사귀게 되는 의미있고 필요한 자리였다. 이에 구장주 총학생회장은 "각 단과에서 파 악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고 즐기는 일요음악회보다 술자리를 선택한 것은 신입생 스스로가 자신을 주인이 되는 주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식전 가장 많은 신입생이 모이는 이 날 이 시간에 학교일정과 각 학생회 일정이 결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일 정 모두 신입생이 참여할 만한 가치 있는 자리였음에도 신입생들은 한가지 선택만을 해왔다. 학교와 각 학생회간의 교류와 배려가 있다면 신입생들에게 훨씬 나은 대학 생활의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 음악회는 MBC TV를 통해 오는 9일 방영될 예정이다.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요청

직원노조, 노동법 개정으로 늦어져

직원노조(위원장=김정숙)는 지난 24일 97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요청안을 학교측에 발송했다.

오는 7일 1차 교섭을 할 예정인 노조측은 운영위원회에서 수월한 6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채용 및 운운 △학생회 개혁 위원회 구성 △사무기능직 전환문제 △기술직 3급 신설 △기능직 근

무환경 개선 및 연수인원 증가 △ 97년 기본급 인상과 기능직 등급수당, 교섭위원은 서울노조 위원장의 4 명, 경주노조 위원장의 2명으로 총 8명이다.

최일우 사무국장은 "노동법 개정 때문에 예년에 비해 많이 늦춰졌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파견 교원 발표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어국문학)는 97년 1학기 특별기금에 의한 해외파견 교원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는 △황용호교수(회계학)=미국 아리조나대 △박영희교수(가정교육학)=미국 아이오와대 이고, 경주캠퍼스는 △이만교수(불교학)=미국 캔자스대 △이갑교수(화학)=미국 스탠포드대로 각각 파견됐다.

재단 적립금의 한해 배당금을 모아 조성한 특별기금으로 파견되는 교수들에게는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가 지급된다.

신입생 토익시험, 응시율 55%

취업대비 실용영어실력 향상해야

취업과(과장=김철석)는 지난 27일 97학년도 신입생 모의 TOEIC시험을 실시했다.

개교 90주년기념문화관, 동국관, 본관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은 총 3천1백1명의 신입생 중 1천6백96명이 응시해 5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결과는 시사영어사 YBM에서 50

일 후인 오는 4월20일경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취업과 김철석 과장은 "신입생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며 취업을 대비해 실용영어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이번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학연구 발간'

한국문화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지난 3월 1일 '한국문학연구 제19집'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집은 지난해 '현대 한국 여성의 문학적 초상'이란 주제로 열렸던 개교 90주년 기념 제16차 한국문학 학술회의 논문을 특집으로 실었다.

수강신청...선착순 인원제한

5일부터 7일까지 각 실습실 PC로

'9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이번학기부터는 수강신청·정정이 해화관, 과학관, 동국관 등 학교내 9개 실습실에 있는 4백 50여대의 컴퓨터로만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수있다. PC로 하는 수강신청·정정에 대한 설명서는 오는 4일 수강신청확인증서와 함께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OMR카드로 수강신청·정정을 하던 지난 학기까지는 수강신청 인원을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강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다시 분반을 하고 강사를 구하고 강의실을 재배정하느라 개강후 약 한달가량 제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PC로 정정을 할 경우 수강신청 인원을 제한하므로 분반이나 그

에 따른 강사확보, 강의실 변동 등이 없어 수업의 조기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정정 후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학생들에게 한해서 10일경 개별적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한편 본교내 모든 학생들이 4백 50대의 컴퓨터로 정정을 할 경우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이나 정정을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종합강의시간표를 보고 수강·정정할 과목의 목록을 작성해 오는 것이 예방책일 것이다.

또한 비밀번호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수를 잘 간수하여 비밀번호가 노출될 자신의 학교정보가 공개되는 피해를 보지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본교생 불심검문 중 연행, 구속

동연, 석방 대책위 조직...대자보로 선전

동아리연합회는 이동우(전기공3)와 이연선(컴공4)의 구속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회장=김명복·역교4)를 조직했다.

지난 22일 경찰의 불심검문 중 연행돼 장안동 치안본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24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확정, 각각 중랑경찰서, 도봉경찰서에 송치됐다.

이에 대책위원회 김명복 회장은 "통신·대자보 등 선전운동을 계속 할 것이고 개강 후 재정부안 운동 함께 할 것이다. 그 외 사법대, 사학대, 참여학생회도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로 인해 많은 물적 피해를 입고 올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졸업 앨범, CD를 및 학사도 사진 등을 졸업생에게 지급 준비중이던 가운데 졸준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학사도 사진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많이 손상된 까닭으로 아직까지도 졸업생들에게 학사도 사진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화재 당시, 졸준위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 여러 전기장비를 포함하며 총 1천5백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었고 졸준위 관련 자료들도 모두 소실되어 작년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상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화재의 원인이었던 총학생회와 학교측에 보상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보상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준위, 보상대안 필요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4)이해 졸준위는

지난 12월3일 일어난 학생회관 화재

불교학보 발간 예정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은 오는 10일경 11명의 교수·

전임연구원들의 논문을 모은 불교학보 33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이 논문집은 서울권의 오형근, 한보교 교수를 비롯한 8명, 경주캠퍼스의 이흥우, 홍광준 교수, 중국 향주 대학의 황시교 교수의 논문이 실려 있다.

부록으로는 김상현교수(사학)의 '도산학승유'가 실려 있다.

이 논문집은 국내·외 대학 도서관과 불교연구소에 발송될 예정이다.

생협, 할인 판매 실시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생협)는 97학년도 신학기 맞이해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지난달 2월 26일부터 오는 21일까지는 해화관 2층 로비에서 펜더 업급 삼성 노트북을 시중가의 60%인 2백2십여만원에 전시·판매한다.

오늘(3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지하 샘물 안경원에서는 각종안경 및 콘택트렌즈(일부품목 제외)를 20% 할인 판매를 하며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사은품도 지급한다.

또한 사진관은 1회용 카메라, 아트 사진액자를 각각 시중가의 50%, 35%를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응곡대생 본교수학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응곡대학교 교환학생 3명이 각각 경제, 사회, 일본학과에서 수학한다.

이들은 97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1년간 머물게 되는데 등록금 전액면제, 장학금 월10만원을 제공 받는다.

화·진·무·대

나를 따라서

0...97년 2월 26일, 정충체육관 MBC일요음악회 녹화. 새내기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은 찼찼했다.

이유인즉, 새내기들의 수강신청이 끝나 후 선·후배간의 화합을 다지고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뒷풀이를 갔기 때문. 음악회에 갈 것인지... 뒷풀이 하러 갈 것인지. 막막한 예비대학생들.

그러나 결국 한 선배의 외침에 술집을 택했는데... "김중서를 따르겠습니다. 이 선배를 따르겠습니다"

유죄수첩

0...교수님, 시험각 자료실은 어딘가요? 교수회관을 돌며 시험각자료실 찾는 학생 있어...

이유인즉 96년 1학기부터 동국관 L층 1층으로 자리를 옮긴 시험각 자료실의 위치가 학생수첩엔 이전 장소인 교수회관 2층으로 남아 있어...

97년 신입생들에게도 배포될 수첩이 2년째 오류를 신고되어 '알아두면 편리한 곳'이란 이름을 뽐내려하는데...

물어가는 한 학생 한마디 "바람직하다.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곳"

각오

0...97학년도 1학기 개강! 모두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다시 남산 기슭을 바쁘게 오르내리는 시기.

하나, 개강때만 되면 학생들은 해를 해롱 해롱 대느라 캠퍼스는 소위 읍주대학이 되는지 관례. '여기저기서 "마사, 마사, 원샷!"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녹두거리기는 온통 피자(?)로 뒤덮이는 학기초 숲 신도시.

이에 엇그제 왔던 김중서 플라스틱 신도시 "제상 모든 술 남기려고 하자, 술을 들춰먹 먹어..."

이유갈지 않은 이유

0...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다음 날은 신입생 모의TOEIC시험.

아무리 모의TOEIC시험이라 하지만 선배들의 강요인지 후배들의 바람인지 어쨌든 솔로 무리(?)한 탓에 결시자가 꽤됐다는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신입생을 위한 학교측의 시험인데 불참한다는 것은 애교심 부족. (?)

시험시간에 늦게 도착한 신입생 왈 "TOEIC시험 본다고래 소주대신 맥주를 먹었는데..."

외국어 특강 안내(1, 2차)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납입금 수납기간 연장안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입생 특별시험																																																																																
<p>외국어 특강 안내(1, 2차)</p> <table border="1"> <tr> <th>과목</th> <th>영어회화</th> <th>TOEIC</th> <th>Listening(ARKN)</th> </tr> <tr> <td>강사</td> <td>본교 영어회화 전담</td> <td>본교 영어회화 전담</td> <td>본교 영어회화 전담</td> </tr> <tr> <td>시간</td> <td>1차: 97. 3. 10</td> <td>1차: 97. 3. 10</td> <td>1차: 97. 3. 10</td> </tr> <tr> <td></td> <td>-4. 18(6주)</td> <td>-4. 18(6주)</td> <td>-4. 18(6주)</td> </tr> <tr> <td></td> <td>2차: 97. 4. 21</td> <td>2차: 97. 4. 21</td> <td>2차: 97. 4. 21</td> </tr> <tr> <td></td> <td>-5. 30(6주)</td> <td>-5. 30(6주)</td> <td>-5. 30(6주)</td> </tr> <tr> <td>시간</td> <td>오전 07:50~08:50</td> <td>오전 07:50~08:50</td> <td>오후 07:00~18:00</td> </tr> <tr> <td>수강료</td> <td>50,000원</td> <td>30,000원</td> <td>30,000원</td> </tr> <tr> <td>강의실</td> <td>외국어교육원 강의실</td> <td>Lab A실</td> <td>Lab A실</td> </tr> <tr> <td>접수처</td> <td>외국어교육원</td> <td>외국어교육원</td> <td>외국어교육원</td> </tr> <tr> <td></td> <td>(동국관 L층 2층)</td> <td>(동국관 L층 2층)</td> <td>(동국관 L층 2층)</td> </tr> <tr> <td>접수기간</td> <td>97. 3. 3~신청 마감</td> <td>97. 3. 3~신청 마감</td> <td>97. 3. 3~신청 마감</td> </tr> </table>	과목	영어회화	TOEIC	Listening(ARKN)	강사	본교 영어회화 전담	본교 영어회화 전담	본교 영어회화 전담	시간	1차: 97. 3. 10	1차: 97. 3. 10	1차: 97. 3. 10		-4. 18(6주)	-4. 18(6주)	-4. 18(6주)		2차: 97. 4. 21	2차: 97. 4. 21	2차: 97. 4. 21		-5. 30(6주)	-5. 30(6주)	-5. 30(6주)	시간	오전 07:50~08:50	오전 07:50~08:50	오후 07:00~18:00	수강료	50,000원	30,000원	30,000원	강의실	외국어교육원 강의실	Lab A실	Lab A실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L층 2층)	(동국관 L층 2층)	(동국관 L층 2층)	접수기간	97. 3. 3~신청 마감	97. 3. 3~신청 마감	97. 3. 3~신청 마감	<p>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p> <p>'9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 간: 97. 3. 5(수)~3. 7(금) 2. 장 소: 교내 컴퓨터 실습실 3. 대 상: 전교생(이번 학기 복학, 재입학생은 위 기간에 수강신청할 것) <p>4. 유의사항</p> <p>가. 금번학기부터 수강신청정정 방법을 종전의 OMR카드를 이용한 방법에서 LAN으로 연결된 교내의 컴퓨터실습실의 PC를 이용한 온라인 정정으로 변경 실시함.</p> <p>나.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서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정정후 학업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할 것.</p> <p>다.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p> <p>라. 동일 교과목의 이중 신청시 학점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수강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람.</p> <p>마. 수강신청정정기간에는 교양교과목 및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교과목의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서만 수강신청정정이 가능함.</p> <p>바. 자세한 수강신청정정보령은 별도 제작한 수강정정보령을 참조하기 바람.</p> <p>사. 분반이나 폐강된 강좌를 별도 재배 부원 조정시간표 유인물에서 확인하여 수강에 착오없기 바람.</p> <p>아. 분반에 따른 정정은 학교에서 일괄 정정처리하며, 폐강된 강좌를 신청한 학생은 정정기간중 타 과목을 신청할 것.</p>	<p>납입금 수납기간 연장안내</p> <p>'97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연장 수납합니다.</p> <p>다 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기간: 1997년 3월3일(월)~3월 12일(수) 2. 납부처: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납부처</th> <th>대 상 학 생</th> </tr> <tr> <td>서울 및 경주캠퍼스</td> <td>제일은행 전국지점</td> <td>장학치러던 교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처리된 장학생 및 복학생 교지서 포함)</td> </tr> <tr> <td>서울캠퍼스</td> <td>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td> <td>(1)장학금지급의뢰서(서울소재 한 학생(동국공고지서와 장학금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지액만 납부)</td> </tr> <tr> <td>경주캠퍼스</td> <td>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td> <td>(2)개발행정고지서</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록금 고지서는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납부처	대 상 학 생	서울 및 경주캠퍼스	제일은행 전국지점	장학치러던 교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처리된 장학생 및 복학생 교지서 포함)	서울캠퍼스	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	(1)장학금지급의뢰서(서울소재 한 학생(동국공고지서와 장학금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지액만 납부)	경주캠퍼스	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	(2)개발행정고지서	<p>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p> <p>'97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니 희망자는 각 학과 또는 전공사무실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p> <p>아 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과모집단위 <p>가. 선발대상: '97학년도 2학년 재학중인 자. 나. 선발방식: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중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산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과에서 자체 선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학부, 계열 모집단위 <p>가. 선발대상: '97학년도 2학년 재학중인 자. 나. 선발방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중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산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부, 계열에서 교육부 승인 인원의 2배수로 예비 선발. 2)2학년말 전공결정 후, 사범대학에서 교육부 승인범위내 확정 선발함. 3)단, 한국어문학부, 미술학부는 표시과목이 동일하여 예비선발 없이 교육부 승인범위내 확정 선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2학년 편입자의 선발은 전적학교의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경쟁하여 선발 가능. 4. 성적 산출 방식: 취득 평점평균/4.5×100 5. 신청기간: 97.3.4(화)일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 교학과(Tel. 3380)로 문의하기 바람. 	<p>신입생 특별시험</p> <p>'97학년도 신입생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1학기 특별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과목 <table border="1"> <tr> <th>이수구분</th> <th>학수번호</th> <th>교과명</th> <th>학점</th> <th>비고</th> </tr> <tr> <td>교양필수</td> <td>00005</td> <td>컴퓨터 실습1</td> <td>2</td> <td></td> </tr> <tr> <td>교양필수</td> <td>00009</td> <td>실용영어1</td> <td>1</td> <td></td> </tr> <tr> <td>교양필수</td> <td>00007</td> <td>영어회화1</td> <td>1</td> <td></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응시자격 및 과목 <p>가. 자격: '97학년도 1학년 재학생(1학년 복학생 포함)</p> <p>나. 과목: 2과목까지(3학점 이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시험일시: 97. 3. 8(토) 09:00 4. 전형료: 과목당 30,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p>가. 기간: 97. 3. 3(월)~3. 5(수), 3일간</p> <p>나. 장소: 교무처 교무과(접수시 방명합판 사진 1매 지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전형방법 <p>가. 컴퓨터실습1: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플레이에 저장하게 한 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 (실습테스트)</p> <p>나. 실용영어1: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써서 시험실시 후 평가</p> <p>다. 영어회화1: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전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합격자 발표: 97. 3. 11(화), 15:00(예정), 교무과 8. 합격후 성적: A+, A°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명	학점	비고	교양필수	00005	컴퓨터 실습1	2		교양필수	00009	실용영어1	1		교양필수	00007	영어회화1	1	
과목	영어회화	TOEIC	Listening(ARKN)																																																																																	
강사	본교 영어회화 전담	본교 영어회화 전담	본교 영어회화 전담																																																																																	
시간	1차: 97. 3. 10	1차: 97. 3. 10	1차: 97. 3. 10																																																																																	
	-4. 18(6주)	-4. 18(6주)	-4. 18(6주)																																																																																	
	2차: 97. 4. 21	2차: 97. 4. 21	2차: 97. 4. 21																																																																																	
	-5. 30(6주)	-5. 30(6주)	-5. 30(6주)																																																																																	
시간	오전 07:50~08:50	오전 07:50~08:50	오후 07:00~18:00																																																																																	
수강료	50,000원	30,000원	30,000원																																																																																	
강의실	외국어교육원 강의실	Lab A실	Lab A실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L층 2층)	(동국관 L층 2층)	(동국관 L층 2층)																																																																																	
접수기간	97. 3. 3~신청 마감	97. 3. 3~신청 마감	97. 3. 3~신청 마감																																																																																	
구 분	납부처	대 상 학 생																																																																																		
서울 및 경주캠퍼스	제일은행 전국지점	장학치러던 교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처리된 장학생 및 복학생 교지서 포함)																																																																																		
서울캠퍼스	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	(1)장학금지급의뢰서(서울소재 한 학생(동국공고지서와 장학금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지액만 납부)																																																																																		
경주캠퍼스	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	(2)개발행정고지서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명	학점	비고																																																																																
교양필수	00005	컴퓨터 실습1	2																																																																																	
교양필수	00009	실용영어1	1																																																																																	
교양필수	00007	영어회화1	1																																																																																	
외국어교육원	교무처장	총무과장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비밀번호 노이로제’ 징후

사생활 보장받지만 숫자더미에 빠져 허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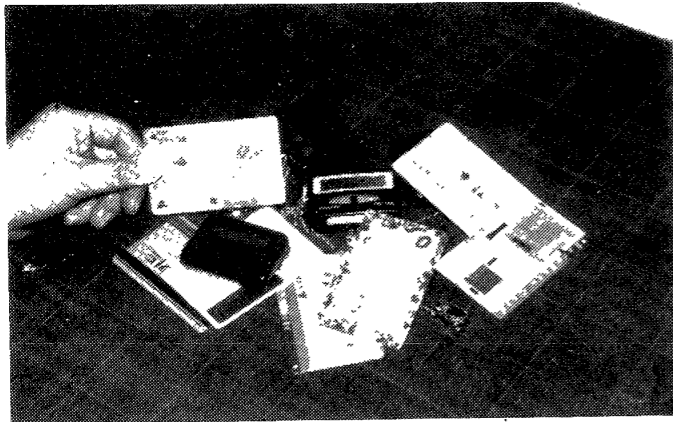
현금카드, 호출기, 통장, PC통신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가 헛갈려 자신의 머리를 의심하며 애먹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생활하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야 이용가능한 것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 한 학생의 예를 들어보자. 이 학생의 경우 현금카드 2개, PC통신 ID 2개, 호출기, 비밀번호가 필요한 도서관 회원증이 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기가 선별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라서 이 기능

해 비밀번호가 쓰일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비밀번호는 증가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일일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사적인 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다. 구분을 해보면 현금카드나 PC, 통신, 보안장치를 위한 비밀번호는 물론,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고 호출기나 전화기, 각종 문서의 비밀 보관은 사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

할 수도 없다. 대개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기 쉽다. 생일, 전화번호, 학번 따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밀번호 선택에도 고심

굳이 신상에 관련된 숫자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1111, 1234 따위도



◇최근 무선호출기와 은행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비밀번호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비밀번호 노이로제’가 확산되고 있다.

를 작동시켜 놓으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통화 가능하다. 또 아파트 입구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린다.

비밀번호 사용영역 늘어 관리 벅차

결코 극적으로 설정된 인물이 아니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비밀번호는 최대 8개이다. 여기에 각종 통신 통화와 이용과 비밀번호 보관을 위

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늘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 열명 정보사회로 불리워질만큼 다수에게 유통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상황과 모순되기는 하지만 사적영역을 넘어서는 정보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자신이 관리해야 할 많은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똑같이

파하려 한다. 그리고 카드 분실이나 비밀번호 노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가끔 생각이 안나거나 헛갈리는 경우를 흔히 겪게 된다. 생활의 편리와 비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 주는 비밀번호.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밀번호가 더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비밀번호 관리 하다가 비밀번호 노이로제 걸리지 않을까? (고지은 기자)

◇신춘문예 당선자 유영안씨를 만나

“작가라는 한길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신춘문예 등단의 꿈을 꾸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 40세의 늦은 나이로 신춘문예 등단의 꿈을 이룬 작가가 있다. “늦어 죽는 그날까지 작가라는 한길로 승부를 걸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는 그의 이름은 유영안(국문 89졸)

신춘문예에 등단하는 작가들은 1년에도 수십명이지만 그가 기자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신춘문예 등단 작가가기 전에 본고를 졸업한 선배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라남도 완도. 그 작은섬의 하나인 청산도가 고향이라는 그는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조국분단의 이름을 그려낸 ‘그들의 섬’이 전남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뽑혀 문단에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채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고 있었다.

“조선대학교 공과대 건축과 그리고 다시 외국어대... 그 어느것도 날 만족시키지 못 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내년 이미 굳은 각오와 결심이 있었죠. 그래서, 28살이라는 최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대 국문학과에 다시 지원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운명과 팔자는 정말 정해져 있는거 같아요.” 본고 재학시절부터 글쓰기를 계속해왔다는 유영안씨는 그 당시 경북대학교에서 주최했던 복원 문학상을 87, 88년 연속 수상한 경험도

있으며 새삼 부끄러워 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고 문학동아리인 ‘시선’의 동인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그는 후배들의 문학에 대한 열의 부족을 걱정하며, “학교측의 후원도 필요하지만 문학계에 몰입하고 있는 선배와 후배가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그는 요즘 중학생 국·영·수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며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밤새워 글을 쓴다고 한다.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저의 하루는 강의를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게 전부예요. 그 일들의 반복이죠.”

그는 오직 글쓰는 것에서 생의 의미나 보람을 찾았다고 한다. 오직 글쓰는 것. 그는 글쟁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중양에서도 계속 도전할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소설이 30여 작품 되는데 작품을 꼭 만들고 싶어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를 끝내며 그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대학 시절 제 글쓰기를 지도해 주신 고내수교수님과 권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불타는 의지와 정열을 채 감추지 못했던 그의 목소리는 서서히 멀어져 갔지만 기자는 한동안 그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임세라 기자)

선물의 의미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상적이지 않다. 기억해야 할 날의 기념, 혹은 그때 그때 사건(?)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치환되어 건네지는(혹은 건네받는), 선물이라는 이름의 물건은 자신의 일상적 사용가치를 넘어서는 효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선물은 반복되던 일상의 딱딱한 순환고리를 한 번 끊어주는 우리 삶에 던져지는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 같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밝아오면하는 것처럼 선물도 화려할수록 그 감탄과 감격이 솔직히 더 크다. 선물은 그 속성상 이미 화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감사의 마음, 축하의 마음이 마음만으로는 부족해 물건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차피 반듯해야만 제 노릇을 하는 것이 선물이었을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선물로 무엇을 받고싶은지. 선물에 당신에게 어떤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졸업, 입학, 생, 발렌타인데이가 줄을 잇는 이즈음, 선물을 받지못해서, 혹은 어떤 선물을 받고도 실망한 적은 없었는지. 물론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의 선물’이 최고이며 선물이란 정성의 표시로 족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배반하는 것, 혹은 우리가 배반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자명한 것들이다.

선물이 고급화되어가는 추세를 가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물은 정성이라는 ‘안들어도 들리는 문구’는 늘 현실속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금강제화 선물관앞에서 기뻐하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초라한 선물앞에 감격해야한다는 당위에 조달리는 자신을 감추기위해, 선물은 이중적이다. 마음을 물건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선물은 목욕에 한지락을 대고 또 한지락은 목욕이라는 도덕들을 잊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욕망을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문화 시평

자본주의적 상황은 이 게임의 룰이 공정한 지 지켜지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선물이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라고? 천만의 말씀! 더 이상 선물은 축하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맺기없이 그저 ‘줄 수 있어 기뻐요’의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 발렌타인데이의 초코렛은 화이트데이의 사랑을 기약한다. 그것은 그리고 상호 암묵적으로 확인시키고 확인하는 행동의 다른 모습이다. 만일 당신이 고가의, 환상적인 선물을 받고 ‘사람을 뭘로 보고...’라고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분개는 당신을 이중적으로 만들 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것은 자본주의적이 된다. 더구나 선물은 자본주의적 소외를 한바탕 축제로 바꾸는데, 사람을 돌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기제가 아니던가? 자본주의 하에서는 축제는 늘어간다. 축제는 선물을 필요로 한다. 축제에 필요한 선물은 화려할수록 좋다. 자본주의는 선물을 생산한다. 물론 선물은 화려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선물이 마음의 선물인지 회의해 보는데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삼삼하긴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는가? 선물을 받으면 부끄럽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은 것 같다(참할말이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모두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다. 사람의 뇌물(연인), 가대의 뇌물(부모), 다정함의 뇌물(친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물론.

박준희

(현실문화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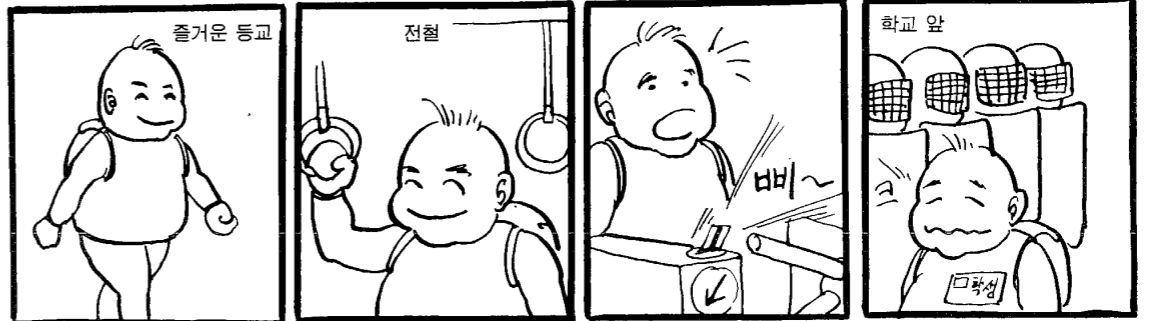
역사적 현재

바로 되보나 암흑기의 시기를 거치기도 하면서 역사적 현재는 곧 과거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새로운 역사적 현재는 역사적 과거를 심판하고 청산하려한다. 역사의 글래는 멈추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경제불황 노동법 문제에서부터 한보사태, 황장엽 망명, 이환영 피습에 까지 우리의 역사적 현재는 어수선한 시국을 타개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증 및

일진 김대통령은 취임 4주년 담화를 발표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 현재에 대한 정리가 아닐까 한다. 한보사태, 아들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부패방지, 경제회생 등 4대과제를 제시하며, 임기 2년을 남기고 초임의 각오로 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멈추지 않는 역사적 글래 속에서 현재는 곧 과거로 넘어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은폐된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정 역사적 현재 속에서 정직하고 정당하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면 역사적 과거는 몇몇해 질 것이다. ▲‘시작’은 새로운 역사적 현재이다. 입학, 새로운 출발은 ‘작은 역사적 현재’인 것이다. 작은 역사적 현재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미래를 준비 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생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 아닐까. (선)

작은데

고대성(12)



번잡한 건 싫어
그래서 난 영풍이야!



대학교재, 전문서적은 물론 문구류, CD,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도시 생활인을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대형문구점, 대형음반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벤트홀, 베이방, 휴식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지하철 종각역에서 나오시면 바로 영풍문고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전문서적에서 CD, 생일 선물까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이 넓어 여유있고 쾌적합니다.
- 효율적인 매장 구성으로 책 찾기가 쉽습니다.
- 스낵코너, 이벤트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영풍문고

영풍문고 384-0000
원문점 02-384-1161-3
부산지점 02-664-0314-6